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광림의 70년, 그 찬양의 순간을 기억하다

여선교회 성가대 2023년 추수감사절 음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

광림교회는 지난 11월 19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성도들이 직접 빵을 떼어 먹는 온전한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주일 저녁에는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및 추수감사절 기념 여선교회 성가대 음악 예배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추수감사절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3대 절기로 지난 일 년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이듬해인 1621년,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래했다.

한국교회에서는 1921년 추수감사일을 정했고, 이후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이 정착하게 되었다.

광림교회 여선교회 성가대는 1983년 햇불 선

교회 행사에 초청받아 찬양하면서부터 발족하였다. 현재 수요치유의 신학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성전 방문 음악 예배, 강남지방 산상 성회, 군부대 위문, 개척교회 봉헌, 성가 경연 대회 출연 등 교회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여선교회 성가대(지휘 고성진)는 이번 추수감사절 음악 예배에서 총 10곡을 찬양하였다. 찬양곡 중 특별히 네 곡은 광림교회 70년 역사 가운데 불렀던 의미 있는 곡을 선정하였다.

여선교회 성가대는 2013년 9월 7일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광림사회봉사관을 봉헌하며 올렸던 오페라 '나부코'의 3악장에 나오는 곡인 <히브리 노예의 합창>으로 음악 예배를 시작했다. 이어 쌍림동에서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 '광림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올렸었던 찬송가 533장 <우리 주

십자가>와 1978년 4월 18일故 김선도 감독님이 신사동 성전을 짓기 전 먼저 우리의 심령이 주의 피로 깨끗해져야 한다며 새 성전 기공 예배에서 부른 <주의 피로 이룬 샘물>, 1982년 11월 12일 성전 봉헌 예배에서 성악가 박신행 교수가 찬송한 <주의 기도> 등의 합창을 통해 광림교회의 70주년 역사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추수감사 예배는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풍성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여선교회 성가대가 매주 수요일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추수감사 주일 저녁에도 아름다운 합창을 통해 은혜 주신 것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10주년에 불렀던 찬송, 1978년 성전 기공식에서 부른 찬송, 1982년 봉헌 예배에서 불린 찬송, 우리가 평소 부르면서 은혜 받는 찬송을

선곡해서 귀한 멜로디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여선교회 성가대와 지휘자, 반주자와 현악 앙상블의 찬양과 연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며 은혜로운 찬양을 한 여선교회 성가대에 감사를 표했다.

여선교회 성가대장인 지애리 권사는 "추수감사절 음악 예배를 앞두고 여선교회 성가대원들은 발성부터 다시 연습하며 기초를 다졌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십 년 동안 수요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땀속까지 광림인인 여선교회 성가대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성가대원들이 지금처럼 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강건하고 기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했다.

박희윤 기자

2 광림의 강단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지혜

3 광림 스토리
광림 헤리티지&비전을 재개관

4 하나님을 만나다
청장년부 홈커밍데이

5 다음세대
제1회 어린이 통일성취기도회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약 3:17)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는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분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야고보 사도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은 말에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앎이 아니라, 순종과 행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의를 행하고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가장 풍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참 기쁨의 삶을 누리며, 오늘도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새로운 신앙을 창조합니다.

지혜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잠언 24장 3절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을 시작하기 앞서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참된 지혜가 있을 때 견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된 지혜, 곧 위로부터 난 지혜와 거짓 지혜, 곧 시기와 독한 마음으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거짓 지혜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지혜는 이기적인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의 시작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이며, 주님을 아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새로운 신앙을 창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며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와 믿음을 가질 때 새로운 삶을 창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약 3:13~18

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둘째, 하나님의 지혜는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창조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은 우리 삶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여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편을 가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신뢰가 깨지게 만들고 서로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약 3:15)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전까지는 이러한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성결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면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보다 더 높은 차

원의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창조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는 새로운 삶의 열매를 창조합니다.

본문 17절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며,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다섯 가지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화평’은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화평의 사람이 되어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관용’은 무조건 친절하거나 배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절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셋째 ‘양순’은 다른 사람을 통해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넷째 ‘궁홀’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으로 충만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것으로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열매를 창조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더 나아가 이러한 삶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거짓이 없다는 것은 다른 숨겨진 의도나 가식이 없는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본문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하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아 삶 속에서 언제나 의의 아름다운 열매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림 헤리티지 & 비전홀 재개관

매주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사회봉사관 5층에서 관람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존 웨슬리>

광림교회 역사와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림 헤리티지 & 비전홀이 재개관했다. 사회봉사관 5층에 있는 광림역사관은 광림교회 초창기부터 창립 70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광림교회와 함께하신 은혜의 역사 기록과 현재, 미래를 통해 축복과 영적 감동의 공간으로 다시 꾸며졌다.

매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려 있는 광림 헤리티지 & 비전홀에서는 초대교회 역사로 시작하여 국내외 선교지 현황과 선교 방향, 전교인 필사 성경 등을 볼 수 있다. 故 김선도 감독님 추모관에는 설교 노트, 수집한 지팡이와 촛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전시품들과 사진, 영상들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역사의 뿌리로부터 오늘의 열매와 미래를 꿈꾸는 존 웨슬리관에는 초기 감리교회 유품들이 있고, 파운더리 채플을 재현한 공간에는 존 웨슬리 흉상과 웨슬리 채플에 있던 파이프오르간 일부, 장식품, 초기 감리교회 찬송집, 기념품들과 그 당시 쓰던 한글 접시 등 있으며, 존 웨슬리의 데스마스크는 원본을 제외한 단 2점 중 하나가 소장되어 있다. 이곳을 방문한 미국 GMC 목회자들은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살아있는 교회이다. 연합단체가 아닌 개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의 열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며 큰 도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림 헤리티지 & 비전홀은 웨슬리 채플 감리교 박물관과 자매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본당 사회봉사관 5층과 광림수도원 박물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상희 기자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 방문

광림교회·월드비전·국민일보 대표단 일행

지난 11월 13일, 김정석 담임목사는 월드비전(회장 조명환), 국민일보(사장 변재운) 대표단과 함께 안디옥 개신교회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았다. 튀르키예 무장 경찰이 대표단 차량을 에스코트하는 가운데 먼저 안타키아 임시 시청을 방문해 튀투프 사바쉬 광역시장을 만났다. 사바쉬 시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 오래전 한국전쟁 참전을 기억하고 이번 대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을 도운 한국교회와 특별히 광림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 상황에 관심을 갖고 책임지고 도울 것을 약속했다.

이후 대표단은 안타키아 지진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마치 유령도시와 같이 전기도 끊기고 아직 건물 잔해가 다 정리되지 않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안디옥 개신교회는 문화재 건물이기 때문에 돌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광림교회·월드비전·국민일보 대표단은 안디옥 개신교회에서 광림교회 목회자 방문단, 튀르키예와 시리아 성도들과 합류하여 약 100여 명이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진 피해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도와준 광림교회와 먼 곳까지 찾아와 함께 기도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한국에서 준비해간 전기장판 50개와 의류 1,000여 벌, 핫팩, 의약품 등을 전달했다.

다음날 대표단은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인 가지안테프의 월드비전 사업장과 시리아 국경 지역 등을 방문하여 시리아 난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월드비전 이사이기도 했던 김정석 담임목사는 월드비전 시리아 회장의 한국 방문을 제안했으며, 한국 교회와 세계감리교협의회(WMC) 등에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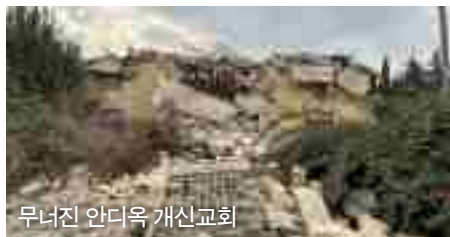
리아 상황을 알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안디옥 개신교회와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 재건이 신속히 이뤄지면 좋겠지만, 주변

지역의 복구와 속도를 맞추고자 하며, 이재민 구호와 지역 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 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폐허가 된 안타키아 지역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



튀르키예와 시리아 성도에게 전기 장판 전달



가지안테프 월드비전 사업장 방문



안타키아 광역시장과 대표단

포토 뉴스



추수감사절 성찬식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예배에서 성찬식을 거행했다.



광림세미나하우스 새단장 감사예배
11월 24일 오전 11시 새 단장 감사예배를 드렸다.



성탄 트리 장식
밀레니엄 광장과 구름다리에 성탄 트리가 세워졌다.

담임목사 동정



11/13~14 광림교회·월드비전·국민일보 대표단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 방문

11/15~18 교역자 퇴수회

11/19 추수감사주일

11/23 육사 신우회

11/24 광림세미나하우스 새단장 감사예배

11/25 故 장천 김선도 감독 1주기 추모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선교구 성가제, 찬양으로 하나 되는 축제

12월 3일(주일) 저녁 7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 12월 3일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선교구 성가제가 열린다. 성가제는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축제이다. 매주일 오후가 되면 교회 곳곳에서 선교구별로 모여 호흡을 맞추어 찬양 연습을 하고, 어린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연습에 참여해 귀엽고 맑은 목소리로 찬양의 기쁨을 더하고 있다. 안지혜 집사(청장년부)는 “선교구 식구들과 가족이 함께 찬양을 부르니 감사해요. 찬양에 담긴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평안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성가제가 되었으면 해요”라고 말했다.

올해 성가제에는 본당 10개 선교구와 남교회 2개 선교구, 북교회, 동탄광림교회 등 총 14개 팀이 참여한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올해 봉헌된 동탄광림교회 성도들도 이번 성가제에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 성가제 심사 기준은 음악성 60%, 참여도 20%, 질서 20%이며 본당과 지교회 성가대 9명의 지휘자가 음악성의 심사를 맡아 화음과 정확한 가사 전달, 음정, 박자 등을 심사한다. 참여도와 질서도 찬양 못지않게 중요하다. 연습과 성가제 당일 참여 인원, 입퇴장 질서 등을 심사한다. 특별히 다음세대를 이어갈 어린이와 청장년들의 참여도가 높은 선교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악보를 암보해 부르는 팀에도 가산점이 있다.

14개 팀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격려상, 장려상, 소망상이 골고루 수여되며 대상팀에는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특별 선물이 마련되어 있다. 장대진 장로(음악위원장)는 “선교구 성가제는 성도들이 마음과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 단합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행사를 위해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담임목사님, 선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 선교구 연합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소현수 기자



청장년부

청장년부 홈커밍데이, TIME TO LOVE

지난 11월 12일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장로)는 정기모임 시간(매주 오후 1시 30분)을 통해 지난 총력전도에 새로 나온 새가족과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던 지체들 모두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졌다. 청장1부(미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TIME TO LOVE>라는 주제로 진행했고, 청장2부(기혼)는 <홈커밍데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고 싶은 반가운 얼굴들을 초대했다. 10월 한 달간 속회별로 대상자에 대한 기도 카드를 작성하며 서로 중보하였고, 3부 예배 후 밀레니엄 광장과 사회봉사관 이동 통로에서 홍보 브로셔를 전하며 부서를 알리기도 하였다. D-DAY인 11월 12일 모임에서는 VIP를 직접 초청하여 마음을 나누며 하나가 되는 시간

을 가졌다. 1부에서는 ‘관계전도용 질문 카드’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지체들의 간증과 최수은 자매의 플룻 연주를 통해 은혜의 시간을 함께 했다. 청장1부에 처음 참석한 권애정 성도는 “오랜만에 만난 형제자매들과 소중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고, 새롭게 알게 된 분들과 함께 믿음의 시간을 나눴다. 앞으로도 믿음과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고 전했다. 청장2부 황상준 회장은 “바쁜 삶 가운데서도 청장년부 모임을 통해 믿음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와 소망을 얻는다는 간증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온전한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지는 이 시

대에 광림의 많은 청장년들이 모여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길 소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기 모임 이후에는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콘서트 워십 ‘사랑에 대하여’에 협력하여 티켓 부스를 운영했고,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청장1부 이상현 성도는 “오늘이 광림교회에서 드리는 3번째 예배인데 예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크게 와닿았다”라고 전했고, 콘서트 워십에 브릿지 역할로 섬긴 청장1부 명용인 부장은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화 선교를 경험하는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청장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상 목사는 1,

2부 전체 구성원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의 다름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전하며, 교회와 가정, 일터 등 각자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을 전했다.

강효진 집사(청장년부)



사랑부

사랑부 2024 아트 캘린더 판매와 기념 전시회



▲ 박진우 Park, Jin Woo
1992년생 광림이레센터
밤하늘 산 Evening sky mountains
40x50cm 캔버스에 아크릴 2017



▲ 이준현 Lee, Jun Heon
1994년생 광림주간보호센터
노란 고양이 Yellow cat
20.3x2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올해로 5번째로 발행되는 ‘2024 사랑부 아트 캘린더’가 판매를 시작했다. 광림이레센터에서 제작한 아트 캘린더는 지난 몇 년간 탄생한 발달장애 화가들의 작품 중 최종으로 선정된 13개의 그림을 실었다. 사단법인 광림에서 운영하는 이레센터는 장애라는 선입견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색깔과 메시지를 담아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발굴·지원하는 곳이다. 광림교회 70주년과 맞물려 20주년을 맞은 이레센터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 경인미술관에서 ‘새로운 내일’展을 열었다. 11월 9일에는 사랑나눔중창단이 스페셜

올림픽코리아가 주최하는 발달장애 아티스트를 위한 음악회 ‘2023 스페셜 나이트’ 무대에 올랐으며, 2024 아트 캘린더 제작까지 연일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림이레센터 이인혜 센터장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발달장애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전달하고 싶어 올해도 아트 캘린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라면서, “꾸밈없는 순수함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는 어떤 작가들보다도 강력한 삶의 의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사랑부 아트 캘린더는 달마다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절기와 계절감에 꼭 맞는 소재의 작품을 1차로 뽑고, 화가들의 그림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두 달 정도 고민하면서 최종 선정된 작품들로 제작한다. 표지와 열두 달 그림 한 점씩, 총 13개의 작품을 한 해의 캘린더에 담는다. 한 달 동안 그림을 감상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매일 그림과 마주하는 분들의 표정을 상상하면

서 제작하는데, 벽에 거는 캘린더로 매달 그림이 바뀌는 인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사랑부의 아트 캘린더는 사회봉사관 1층 빛의숲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아트 캘린더에 담긴 13개의 작품은 전시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13명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Art Calendar 2024년 ‘하나님과 마주하는 일 년, 열두 달’展은 오는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웨슬리관 1층 장천갤러리에서 열린다. 사랑부 위원장 우형진 장로는 “올 한 해도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레센터 작가들이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라면서, “새해에도 작가들이 그림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부탁했다.

한혜선 기자

청년부

광림아트센터 콘서트 워십 ‘사랑에 대하여’

지난 11월 12일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콘서트 워십이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일 5부 예배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여 복음을 전했으며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예배의 자리에 쉽게 나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BBCH홀 공간을 문화선교의 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광림교회 청년부가 주관하였고 가로수길 문화선교팀인 ‘달레트’가 제작되었으며 광림아트센터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사랑에 대하여’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행사는 먼저 LF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

작되어 기도와 성경 봉독 이후에 스페셜 게스트인 2NE1의 공민지 씨가 무대에 등장하여 특송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Adele의 Make you feel my love를 부르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노래의 가사가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느껴졌으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이겨내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시작되었고 세상은 조건에 따라 사랑을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클로징 타임에는 김복유 CCM 가수의 스토리텔

링 찬양이 시작되었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찬양을 함께 부르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누구도 다가와 주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영혼을 올려드리는 영접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땅에 청년들이 세상의 사랑을 바라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또 앞으로 차세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광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LF미니스트리의 찬양과 워십

제1회 어린이 통일성취기도회

지난 11월 18일 토요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제1회 광림교회 어린이 통일성취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광림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구국의 제단, 장자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대로 한걸음 도약하기 위해 준비된 ‘어린이 통일성취기도회’에는 어린이 52명, 성인 31명, 총 83명이 참석하여 그 뜨거운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광림교회에는 선교구가 주축이 되어 매년 진행하는 통일성취기도회라는 좋은 전통이 이미 있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성취기도회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보니 일정이나 전방부대와의 협력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모든 일정과 순서가 너무나도 알차고 의미 있게 준비 및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 통일성취기도회

일행은 가장 먼저 구국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는 백마고지 전적비를 견학하였고, 이어서 분단 조국의 슬픈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제2땅굴과 평화전망대를 견학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어린이 통일성취기도회’에서는 병영문화 체험의 하나로 아이들이 전방부대 병사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식사를 함께하고 군장병들과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정 중 나라와 민족 특별히 통일을 위한 기도회는 두 번 진행되었는데, 6사단 임마누엘 교회와 필승교회에서 장소를 협조해 주셔서, 최전방 대대 교회와 군사분계선이 보이는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과 방문한 장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확신이 들 만큼 의미가 있었고,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아

이들은 평안하고 풍요로운 지금의 나라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들과 군 교회 관계자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선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학교의 ‘어린이 통일성취기도회’는 앞으로 교회학교의 좋은 전통으로 삼아 해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또 구국의 제단이자 장자교회의 다음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재철 목사(교회학교)



신앙 간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일본 선교

일본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재정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부여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기도를 쌓아야 한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늘 주셨고,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늘 풍족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도 재정이 채워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저에게 결단을 하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나아갔을 때 채워주시는 은혜와 직장의 상황 또한 열어주시는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많은 우상들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제게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향한 기도의 제 목들을 채워주셨고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 중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국과는 또 다른 형태로 일본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가시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귀중한 시간을 통해 도전도 받았습니 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여주시는 사랑, 끊임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성도님들, 그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셔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더욱 중보기도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마가타 광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더 나아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순탄치 않아도, 무너짐의 연속일지라도 지금은 고난이지만 뒤돌아보고 나면 ‘주님께서 이때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시간이 될 테니 끊임없이 기도를 쌓으며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라종민 청년(1교구)

목회현장

From Surviving to Thriving



Pastor Wesley Kennedy Post
Kwanglim English Ministry(KEM)

KEM has been active by God's grace for more than 20 years and has been resilient cautiously holding regular services even throughout the Corona virus pandemic. Characterized by three words-joy, peace, and love, the KEM has survived many challenges due to the Corona virus, but now are gaining traction and building resilience. Because of the tireless support for our community, their love for God and gift of pastoral care have transformed English Ministry into a 'people-friendly' congregation full of members who care about their church and neighborhood. KEM strives to revive its worship service through biblical preaching and a dynamic worship team which is always looking for new members. Here are some reasons why people should consider joining Kwanglim English Ministry:

First, come join us for worship and you will be surrounded by people who share your values and beliefs. Second, You will have access to resources such as sermons with PowerPoint and notes and also worship services that can help you deepen your faith. Third, being part of the Kwanglim community provides opportunities for service and outreach. You can use your skills and talents to make a positive impact in your community and the world. Finally, life can be challenging, but being part of a church community means that you have people who will encourage and move with you from not merely surviving but thriving.

If you're looking for a way to deepen your faith, grow spiritually, and make a positive impact in the world, then joining Kwanglim English Ministry may be the right choice for you. Join KEM. We will welcome you with open arms and invite you to join us in creating an enriched life through extraordinary faith.

(한국어는 7면에)

광림남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한 열매를 맺다

광림남교회는 총력전도의 달을 지내면서 10월 25일(수) 저녁 7시에 동백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버스킹을 진행하며 전도하였습니다. 찬양, 난타 공연, 오카리나, 솔로 공연, 바이올린 연주, 국악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1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야외공연장에 와서 함께 공연을 관람하였고, 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화목제 티켓과 전도지를 나눠주며 예배에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29일(주일) 창립 70주년과 총력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화목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초청한 이웃들에게 11시 예배의 김용의 선교사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예배 후 새신자들, 교우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영육 간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대연 권사와 김영미 권사는 "큰 행사라 준비가 쉽지 않았지만, 남교회 모든 기관이 연합하여 잘 준비할 수 있었고, 약 500명 이상

의 새신자들과 교우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다.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교우들의 감사와 맛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봉사자들은 기뻐하며 열심을 냈고, 선교구에서도 역할 분담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최고의 축제가 되었다. 모든 진행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화목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느꼈던 은혜를 나눴습니다.

광림남교회 가나안 성가대에서 11월 11일(토) 철원으로, 새하늘 성가대에서 11월 4일(토) 광림수도원으로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가나안 성가대는 한탄강 주상절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휴전선 155마일 정중앙에 있는 육군 승리 전망대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준환 권사는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장병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에 감사하고 소명을 완수해

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새하늘 성가대는 광림수도원에서 양태갑 지휘자의 세미나 시간, 성가대의 은퇴하신 원로분들과 역대 대장들의 헌신과 공로에 감사하는 시간, 다락방 채플에 대한 소개, 담당 교역자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 시간, 식탁 교제, 故 김선도 감독님 묘소에서의 기도 등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규현 권사는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는 귀한 시간과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와 전도, 예배를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한 열매를 맺는 광림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현진 전도사



광림북교회

몽골인 예배 1주년 감사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감사의 시간들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이 표어처럼 광림북교회는 올 한 해 받은 축복에서 주는 축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광림북교회에는 주일 4부 예배를 몽골인 예배로 모입니다. 광림북교회의 어ینگ렐 광림미션센터와 어르비트 광림미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몽골선교가 광림북교회 몽골인 예배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몽골인 예배가 세워진지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30명정도 모이는 몽골 성도님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초대받은 분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지난 1년의 시

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고군분투하는 몽골인들이 참 많습니다. 홀로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온 청년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땀을 흘리며 일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으로서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생각이 매번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가족들과 꿈을 위해 끝까지 버티며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광림북교회 몽골인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경기북부 지역(의정부, 포천, 양주 등)에는 몽골 다문화 가정의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다문화 흐름에 맞춰 몽골인 어린이

들과 광림북교회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어린이 2부 예배(주일 오후 2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주며, 서로 광림북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셨기에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오는 몽골 청년들, 그리고 여러 가정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몽골인 예배 공동체가 몽골 땅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도합니다.

유민재 전도사



동탄광림교회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2023년 11월 19일 동탄광림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과 추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위해 성도님들은 직접 텃밭에서 가꾼 배추와 무, 정성스럽게 마련하신 과일과 채소를 봉헌하시고, 아름다운 꽃꽂이를 준비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강단을 예쁘게 꾸며 헌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찬식은 동탄 성전에서 드려지는 첫번째 성찬식이었습니다. 성찬을 기념하고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아이들의 헌금송 나누는 예배자입니다를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

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린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도 이 동탄 성전을 통하여서 동탄과 경기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광림의 전통 아래 큰 빛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제석 목사



새가족위원회 교육 강사 5인의 대담

김분한 장로, 안경섭 장로, 신성수 장로, 이기식 장로, 신범식 장로와 함께

광림교회 70주년을 맞는 올해, 새가족위원회는 새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편하고,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기존 8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등록 교인이 되는 비율이 낮아 기간을 4주로 단축한 대신 교육의 질적 요소를 높인 것이다. 첫 주는 새가족 등록과 영접의 시간을 갖고, 2~4주까지 3주간 5명의 장로가 양육자로 나서 교육해 새가족이 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눈에 띄는 차별점이다. 새가족 양육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김분한·안경섭·신성수·이기식·신범식 5명의 원로·시무·현역 장로들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새가족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 뿌리내릴 수 있는 교회! <김분한 장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광림 재단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때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시 118:22) 구절을 꼭 전하며, 광림교회에서 믿음이 자라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덧붙이죠. 광림의 5대 전통 중에서도 ‘사랑의 실천’과 ‘일치된 순종’을 강조하며,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믿음 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는 곳이 광림교회임을 설명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맡으면서 보고 싶었던 제자도 찾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정착하며, 교구·선교회에서 활동하는 새가족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의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신성수 장로>
새가족 교육을 통해 신앙생활의 경험이 없든 간에 구별 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정의하고 고백하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성경도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미지에이션하면서 묵상하는 방법을 안내합

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단순히 스토리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죠. 새가족 교육을 맡으면서 저 역시 성경을 더 가까이하고, 부족한 대로 제 믿음 생활 과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에 사용하실 때까지 열심히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삶! <안경섭 장로>
새가족을 만날 때마다 형식에 얽매이는 신앙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합니다. 교회에 잘 정착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새가족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현된 거 같아 기쁨이 두배가 되죠. 앞으로도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친밀감을 느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더는 방황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우리 교회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가족 분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교회 정착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기식 장로>
정말 새신자, 타교회 출석했던 분, 오래전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나오는 분 등 새가족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모든 분이 공감할 수 있는 새가족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칫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대전에 사는 분이 새가족으로 왔는데, 매주 자녀까지 데리고 출석하면서 교육에 열정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육 후에도 수료자들에게 매일 성경 구절을 보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만나면 먼저 반갑게 다가와 인사를 하거나 전화·문자로 감사함을 표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새가족 교육은 신앙의 기초를 다질 좋은 기회! <신범식 장로>
새가족 교육할 때 첫째 부름받은 성도가 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둘째 광림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인가를 꼭 소개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개인적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죠. 수료 후에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새가족들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이자 은혜입니다. 공부에도 기초가 중요하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새가족 교육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새가족반에서 4스텝 교육 과정까지 이어지는 걸음을 성심껏 중보하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한혜선 기자



목회현장

생존에서 풍요의 믿음으로

웨슬레 케네디 포스트 목사
(광림영어예배)

지난 2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몰려온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불꽃이 살아있는 우리 영어예배는 멈춤이 없이 달려왔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코로나의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인원이 많이 줄고 조심스럽게 드리는 예배이기는 해도 우리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인원은 얼마 되지 않아도 우리 성도와 사역자 모두 ‘기쁨과 화평과 사랑’의 띠를 메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 예배를 한결같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영어예배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광림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people friendly)’ 사역으로 거듭났고 새신자가 꾸준히 찾아오면서 회복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영어예배는 성경적 말씀과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 팀을 갖추고 새신자를 맞이하는 부흥의 사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예배 현장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가치와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파워포인트 영어 설교 자료 등을 보고 영어 설교를 듣고 영어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영어 실력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영어예배에서 여러분이 가진 악기, 찬양, 영어 등 각자의 달란트를 예배 현장에서 사용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영어 실력을 키우면 광림교회의 다른 공동체나 해외 선교현장에서 여러분의 영어 달란트로 선한 영향력을 키울 기회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예배 후 다과를 준비해 나누는 교제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한국어와 영어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도 익힐 수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피곤할지라도 우리 영어예배에 오시면 서로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생존형’ 믿음이 아니라 ‘풍요를 이루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목회 방향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우리 교회와 세계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달란트와 역량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영어예배는 ‘풍요한 삶을 이루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여러분이 오시기를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40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막 15:34~37)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날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였다. 이른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로, 예수의 이모)은 예수의 무덤으로 향했다.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추슬러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본 후 미리 향유를 준비해 두었다.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다. 무덤 입구의 돌문은 봉인되어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에게서 번개 같은 빛이 번쩍였고, 그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몹시 두려웠다. 천사는 즉시 무덤 입구의 돌문을 옆으로 치웠다.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문이 열려 있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의 무덤을 누가 열었지? 큰 돌문을 어떻게 치웠지?” 장정 대여섯 명이 힘을 써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돌문이었기에, 마리아와 여인들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순간 깜짝 놀랐다. 무덤 속은 낮처럼 환하게 밝았으며, 천사가 앉아 있었다.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였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것을 안다. 그는 여기 있지 않다. 그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와서 그가 있던 자리를 살펴보아라.”

여인들은 천사의 말대로 예수의 시신이 있던 곳을 살펴봤으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에 천사가 다시 여인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거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그를 만날 것이다.” 이에 여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먼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선생님이 다시 살



아나셨다고?”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이 쉽게 믿기지는 않았으나, 평소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한 말이 기억났다. 베드로와 여인들은 다시 무덤으로 달려갔다. 과연 예수의 시체는 없었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細麻布, 가는 삼실로 곱게 짠 피륙)는 잘 개켜져 있었다.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그들은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리려고 황급히 떠났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떠나지 않고 무덤 앞에 서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건넸다. “네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는 것이냐?” 그러자 마리아는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고 대답했다. “시신을 옮긴 거라면, 내가 가져갈 테니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 주세요.” 바로 그때였다. “마리아야.” 순간 마리아는 깜짝 놀랐다. 정말 예수가 아닌가! 기쁨에 겨워 그녀가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자 예수가 말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너는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한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천사가 나타나 잠시 기절했으나, 일어나 돌문이 열려 있고, 또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모두 달아났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도성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대제사장에게 말했다. “지진이 났고, 번개 같은 빛과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놀라서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소문처럼 그가 살아났는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은 급하게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소.

▲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_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는 가까이 다가가지, 그가 ‘나를 만지지 마라’고 당부하는 장면이다.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인은 만져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알렉산더 이바노프의 작품

분명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을 것이요.”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유대 지도자들은 긴장감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가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을 다시 생각해 냈다. 결국, 그들은 거액의 돈을 경비병들에게 주면서 말했다. “밤에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훔쳐 갔다’라고 말하거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잠들었다고 하면, 총독에게 문책을 받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이 말하였다. “만약 총독에게 ‘근무 중에 잤다’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손을 써서 문책을 면하게 해 주겠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매수에 넘어간 경비병들은 그들의 지시대로 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전역에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었다.



광림뉴스레터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